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기획재정부	보도자료		
보도일시	2021. 5. 31.(월) 조간	배포일시	2021. 5. 28.(금) 18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강대현 (044-215-5410)	담당자	이창희 사무관 muhanman@korea.kr
			김재현 사무관 z56543@korea.kr

지역균형발전 강화, 분석의 정확성 제고 등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대폭 개선

- '21년 제3차 「재정사업평가위원회」 의결 -

□ 기획재정부는 5월 28일 **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** 주재로 **2021년 제3차 「재정사업평가위원회」**를 개최하여,

○ **예비타당성조사**(이하 "예타") **부문별 표준지침 개정(안)**을 **논의·의결**하였음

<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요 >

- **(일시·장소)** '21. 5. 28.(금) 16:00~17:30, 서울지방조달청 PPS홀
- **(구 성)** 위원장(기재부 제2차관), 정부위원(5인), 민간위원(15인) 등
  - 정부 : 기재부, 과기정통부, 농식품부, 국토부, 해수부 등
  - 민간 : 학계, 연구기관 등 관련 민간전문가
- **(안 건)**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(안) 등

* 부문별 표준지침은 예타 조사의 객관성·중립성·투명성·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용·편익 추정, 평가항목별 분석 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현재 10개의 표준지침이 KDI를 통해 운용되고 있음

**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→ 예타운용지침·예타수행총괄지침(기재부 훈령) → 부문별 표준지침(예타 수행 일반, 타당성재조사 일반, CVM(Contingent Valuation Method) 분석, 도로·철도, 문화·관광, 수자원, 항만, 공항, 정보화, 의료시설 등 10개)

□ 이번 **예타 표준지침 개정**은 예타 조사에서 **지역균형발전 평가**가 중요해짐에 따라 **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**을 평가에 보다 **정확하게 반영**하고,

○ 더불어 **경제성 분석**의 **비용·편익 산정**에 있어 경제·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**새로운 편익**(예: 통행시간의 신뢰성 가치)의 반영이나, 예타 **사업유형·특성**에 따른 **정확하고 구체적**인 비용·편익 산정을 위한 것임

□ 10개 표준지침 중 **중요성**이 크고 **활용도**가 높은 **5개 지침***에 대하여 우선 **개편방안**을 마련하기 위하여

* 예타 수행 일반, 타당성재조사 일반, CVM 분석, 도로·철도, 문화·관광

○ **지난해 1월**부터 지침별 **리뷰팀**(50명)*을 **구성**하고 사업부처·지자체, 학계, 연구기관 등의 **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**하여 개정 방향, 개정 필요항목 등을 논의하였음

* KDI 주관으로 예타수행기관(KDI, 조세연),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, 외부 전문가 등으로 4개의 리뷰팀 구성 (50명)

□ 예타 표준지침의 **주요 개정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❶ **(지역균형발전 평가)** 지역균형발전 평가 시 **지역 여건**에 관련된 **다양한 지표**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**지역낙후도지수** 산정방식을 개선함

○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는 **8개 지표***를 **활용**하여 산정하였는데, **지역의 현실**을 **합리적으로 고려**하는데 **한계**가 있었음

* 인구 2, 경제 3, 기반시설 3

- **국가균형발전위원회**가 발표한 **균형발전지표 36개***를 활용하여 **전국 지자체**(광역 17, 기초 167)의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함

* 인구 1, 경제 1, 주거 4, 교통 4, 산업일자리 4, 교육 4, 문화여가 4, 안전 3, 환경 4, 보건복지 7

○ 지역낙후도지수 **산정방식 개선**으로 교육, 문화여가, 안전, 환경 등 **지역 여건**이 보다 **구체적이고 포괄적**으로 반영될 수 있어,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**보다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**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❷ **(사회적 할인율)** 경제성 분석 시 미래의 **비용·편익**을 **현재가치**로 환산하는 **사회적 할인율***을 **현행(4.5%)**대로 **유지**하기로 하였음

* 현재 사회적 할인율은 4.5% 적용(단,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철도(40년)·수자원(50년) 사업은 운영 30년 동안은 4.5%, 이후는 3.5% 적용)

< 사회적 할인율 변동 추이 >

	'99~'03	'04~'07	'08~'17.7	'17.8~현재
사회적 할인율	7.5%	6.5%	5.5%	4.5%

○ 사회적 할인율은 **경제·사회 여건의 변화** 등을 고려하여, **매3년**마다 조정 여부를 **검토**하는데,

- 이번의 경우 KDI의 **사회적 시간선호율**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당분간 **현행** 사회적 할인율(4.5%)을 **유지**하고,

  중장기 **시장금리** 동향 등을 **지속 모니터링** 하면서 **추후** 조정여부를 **계속 검토**해 나가기로 하였음

❸ **(비용·편익 산정기준) 경제성 분석** 시 **비용·편익** 분석의 **정확성을 높이기** 위해 일률적인 비용단가 적용을 지양하고, **사업특성**과 **목적**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음

- **(비 용) 일반철도 시스템** 공사비 및 **도로터널 기계설비** 공사비의 산정기준을 설비유형·터널등급에 따라 **구체화**하고, **제로에너지** 인증등급 **기준을 충족**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**공사비**를 추가(공사비의 5%)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① **일반철도 시스템 공사비**:
(현행) 사업 연장(㎞) 기준 표준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,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비용 추정에 한계
→ (개선) 설비별 특성을 반영하여 속도등급, 토공·교량·터널 등에 따라 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

② **도로터널 기계설비 공사비**:
(현행) 터널 延長 기준(1㎞이상·미만)에 따라 단위공사비를 산정하여, 다양한 터널 延長에 적합한 공사비 산정이 곤란하고, 차로數기준이 불명확
→ (개선) 터널연장 등급(1~4등급)에 따라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, 기준이 되는 차로數(4차로)를 도입

③ **제로에너지 공사비**:
(신설) 제로에너지 인증등급 기준을 충족(5등급) 할 경우 공사비의 5%를 비용에 추가 반영

- **(편 익) 문화·관광시설**의 **편익**을 **정확하게 산정**하기 위해, 통행시간(이동시간)의 가치를 산정 시, **'비업무 통행시간'**에서 **'여가 통행시간*'**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함

* 여가 통행: 여가, 오락, 외식, 친지 방문

** '비업무' 통행시간 가치를 '여가' 통행시간 가치로 변경 시, 추정 편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

❹ **(추후 검토사항)** 현재 **경제성 분석**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부처 등이 지속적으로 **반영 필요성**을 제기하는 **무형의 편익***에 대해, 사업부처, 전문가 등의 **의견을 수렴**하고 **연구**를 진행해 나가겠음

* (예) 통행시간 신뢰성 가치, 여객 쾌적성 향상, 선택가치

□ 이번 **개정된 표준지침**은 **'21년 제1차 예타 대상선정**('21.4.30) 사업의 **예타 조사 단계**부터 적용됨

□ **안도걸 차관**은 예타 제도운용에 대한 **국민**의 **신뢰**와 **지지를 확보**하기 위해 **경제·사회 변화에 맞추어 제도**를 **지속 개선**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

○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 **부문별 예타 표준지침**도 **단계적***으로 **개선**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

* ('21년) 의료시설, 정보화 사업, ('22년) 수자원, 항만, 공항 시설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